

CHAPTER1. <2021학년도 6월 + 9월 문법편>

<문법>은 다음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자.

개념 자체를 모른다면 본 강사의 강좌인 문법 총론을 회독 하자. 미시적인 개념들을 가장 상세히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본 강사가 만든 문법스텝팩을 통해 EBS 수록 변형 문제들을 단계별로 풀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1단계는 OX, 2단계는 연관 자작 문제들, 3단계는 평가원 기출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함께 2021학년도 6평 11~12번 문제부터 보자.

여러분, 지문형 문법은 읽어야 합니다. 반드시 읽으세요. (물론 문법 총론을 통해 개념이 완벽하다면 풀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풀 수 있나 보세요. 단, 현대 문법 문항일 때만 먼저 좀 해 보는 겁니다. 근데, 고전 문법 지문이라면 현대 문법과 상호 비교하면서 지문을 닦치고 읽어야 합니다. 고전 문법에서는 고고 문법을 초월하는 지문형이 무조건 나오니까요.)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학년도 6평]

담화는 하나 이상의 발화나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담화가 그 내용 면에서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담화를 이루는 발화나 문장들이 일관된 주제 속에 내용상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어야 한다. 이때 각 발화나 문장 간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형식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장치에는 **지시, 대응, 접속 표현**이 있다. (앞으로의 논의 범주를 제시함. 지시, 대응, 접속의 공통점은 뭐냐고? '발화나 문장 간의 관련성을 보여 준다'고. 그것이 공통점이다. 독해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병렬은 대비라는 것. 그러면서도 그 차이 속에 공통점 또한 찾을 수 있어야겠지.)

우선 지시 표현은 담화 장면을 구성하는 화자, 청자, 사물, 시간, 장소 등의 요소를 직접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리고 대응 표현은 담화에서 언급된 말, 혹은 뒤에서 언급될 말을 대신하는 표현이다. 대표적인 지시 표현으로는 '이, 그, 저' 등이 있다. 이들이 담화에서 언급되는 말을 대신할 때는 대응 표현이 된다. 가령 친구가 든 꽃을 보면서 화자가 "이 꽃 예쁘네."라고 말했다면, '꽃'을 직접 가리키는 '이'는 지시 표현이다. 그러나 화자가 "그런데 지난번 꽃도 예쁘던데, 그때 그거는 어디서 샀어?"라고 발화를 곧장 이어 간다면 이때의 '그거'는 앞선 발화의 '지난번 꽃'이라는 말을 대신하는 대응 표현이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지시 표현과 대응 표현을 구분할 수 있었어야 함) 끝으로 접속 표현은 문장과 문장, 발화와 발화를 연결해주는 표현으로, '그리고' 등과 같은 접속 부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앞서 언급된 두 번째 발화의 '그런데'도 앞의 발화를 뒤의 발화와 이어 주는 접속 표현에 속한다.

한편, 담화 전개 과정에서 화자는 청자 및 맥락을 고려하면

서 발화나 문장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구현한다. (문장은 의도를 드러낸다. 각종 표현이 파생된다고 문법 총론, 문법 스텝팩에서 분명히 언급하였다. 이때 서술어 파트가 대단히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때 여러 문법 요소가 활용된다. 가령 화자는 "아버지! 진지 드세요."라는 발화에서 '드세요'의 '드시-'를 통해 문장의 주체인 '아버지'를, 종결 어미 '-어요'를 통해 청자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이 화자는 특정 어휘나 조사, 어미 등을 사용하여 어떤 대상에 대해 높이거나 낮추는 태도를 드러낸다. 아울러 위의 '드세요'의 '-어요'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음도 보여 준다. 즉, 종결 어미는 청자에게 답변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점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등 화자의 의도를 구현할 때도 쓰인다. (서법에는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 진술 평서문, 감탄을 드러내는 감탄문,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강조 의문문, 함께 하길 바라는 청유문, 청자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문 등이 존재한다. 이는 종결 표현과 문장 부호를 통해 결정될 수 있음을 알아두자.) 화자, 청자 및 맥락이 발화나 문장에서 문법 요소와 맺고 있는 관련성은 ㉠ "할아버지께서 마침 방에 계셨구나! 과일 좀 드리고 오렴."과 같이 연속된 발화로 이루어진 담화에서 더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학년도 6평]

— < 보 기 > —

(두 친구가 만나서 주말 나들이 장소를 정하는 상황)
선희: 우리, 이번 주말 나들이 장소로 어디가 좋을까?
영선: (탄생각을 하다가) ㉠ 지금 저녁 먹으러 가자.
선희: 그게 뭐 소리야? 주말 나들이로 어디 갈 거냐고.
영선: (머쓱해하며) 아, 그럼 놀이동산 갈까?
선희: 음, ㉡ 거기 말고, (사진을 보여 주며) ㉢ 여기는 어때?
영선: ㉣ 거기? 해수욕장은 아직 좀 춥잖아. ㉤ 그리고 너무 멀잖아. (선희를 바라보며) 아, 작년에 같이 갔던 수목원은 어때?
선희: 그래, ㉥ 거기가 좋겠다. 그럼, 토요일에 보자. 안녕.

- ㉠ ㉠은 '주말 나들이 장소 정하기'라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아서 담화의 완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 ㉡ ㉡는 '영선'이 발화한 '놀이동산'을 대신하는 대응 표현이다.
- ㉢ ㉢, ㉣는 발화 간의 관련성을 높이는 형식적 장치로서 형태가 다른 표현이지만 동일한 장소를 나타내고 있다.
- ㉤ ㉤는 '해수욕장은 아직 좀 춥잖아.'와 '너무 멀잖아.'를 대등하게 이어 주는 접속 표현이다.
- ㉥ ㉥는 '작년에 같이 갔던 수목원'을 직접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다.

[정답]

⑤ : '거기'는 앞 문장의 수목원을 대신한 표현이므로 앞말에 대한 대응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답]

- ① '완결성'은 말 그대로 지문에 나와있듯 내용 상의 유기적 관련성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관련 없는 이야기를 영선이가 뺏어버렸으므로 완결성 떨어뜨리죠.
- ② 앞 발화의 놀이동산을 대신하는 표현 맞습니다. '거기'는 지금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장소를 직접 가리키는 것이 아니니까요.
- ③ '여기', '거기'는 현재 공유하고 있는 사진 속 장소, 즉 해수욕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동일한 해수욕장을 다르게 화자, 청자에 따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같은 유대종이라는 대상을 저는 '나'라고 표현하고, 여러분들은 '너'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발화 간의 관련성을 높이는 표현은 지문 내 세 표현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문제 출제화가 된 것입니다.(매력적 오답)
- ④ '그리고'는 해당 해수욕장이 부적합한 까닭의 나열이므로 해당 선지는 타당합니다.

1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학년도 6평]

- ① '할아버지께서'의 '께서'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② '계셨구나'의 '계시-'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③ '계셨구나'의 '-구나'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에 관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음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드리고'의 '드리-'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⑤ '오렴'의 '-렴'을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정답]

④ : '모시다, 드리다, 여쭙다, 뵙다.'는 객체 높임 표현입니다. 이러한 어휘를 사용한 객체 높임은 외위두셨어야 합니다. 그냥 이 문제 틀린 건 기본기 부족입니다.

[오답]

- ① : '께서'는 조사를 통해 주체 높임.
- ② : '계시다'는 어휘를 통한 주체 높임.(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는 어휘를 사용한 주체 높임으로 좀 외우자.)
- ③ : '-구나'는 새롭게 안 사실을 감탄문의 형식으로 드러낸 것이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할아버지가 계신 걸 이제야 알았으므로 그 사실이 할아버지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 ⑤ : '-렴'은 행동 요구하는 명령문이므로 해당 선지는 타당하다.

12번 관련 높임 표현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외우자.

	주체	객체	상대
조사	께서	께	요
어미	-시-	X	多
어휘	주무시다 계시다	모시다 드리다 여쭙다 뵙다	X

자, 위 2문제 중 11번은 아래의 수특 문제들을 철저히 반영, 변형하였다.

[문제]

<자료>의 ㉠~㉣을 지시 표현과 대응 표현으로 구분하고,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이유를 쓰시오.

< 보 기 >

경호: 우리 반이 요즘 너무 활기가 없는 것 같지 않아?
 수진: 음, 그건 그래. 반 분위기를 뒤로 떠올 수 있을까?
 경호: 방과 후 활동에서 이름 삼행시로 재미있게 친구를 칭찬해 주기. ㉠의 생각 어때?
 수진: 아, ㉡그거 좋은 생각인데? 일단 계획을 같이 짤 친구 이름부터 써 보자.
 경호: 자, ㉢이 펜으로 적어 봐.
 수진: 이거는 빨간색이니까 ㉣저거로 쓸게.
 경호: 아, 미안해. 이름을 빨간색으로 쓸 뻔했네.

- (1) ㉠ 지시 표현: _____
 ㉡ 지시 표현인 이유: _____
- (2) ㉢ 대응 표현: _____
 ㉣ 대응 표현인 이유: _____

[정답]

- (1) ㉠: ㉡, ㉢
 ㉡: 둘 다 담화(발화) 장면에서 있는 대상을 가리킴.
- (2) ㉢: ㉠, ㉣
 ㉢: 둘 다 담화의 앞에서 언급한 '방과 후 활동에서 이름 삼행시로 재미있게 친구를 칭찬해 주기' 를 가리킴.

[문제]

<보기 1>의 ㉠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1 >

>

서진: 선생님, 대용 표현은 항상 앞에서 언급한 내용 대신에 사용되는 표현인가요?
 선생님: 그렇지 않단다. 대용 표현에는 하나의 담화 안에서 앞에 나온 말을 다시 가리키는 것도 있고, ㉠뒤에 나올 말을 미리 가리키는 것도 있어.

< 보기 2 >

재경: 너 ㉠그 소식 들었어? 동아리 애들이 아침부터 이야기하던데.
 은수: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점심부터 먹자.
 현진: 그래, ㉢이런 말도 있잖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재경: 우리 동아리에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방송 출연 섭외가 들어왔는데도?
 은수: 뭐? ㉤그게 정말이야?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정답]

②

앞으로 나왔으니까 안 나온다고? 담화를 왜 시험에 냈는지를 생각해 보자. 내년엔 여러분 중 누군가는 N수를 할 가능 세계에 있고, 그렇다면 언어와 매체라는 시험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죄송) 언어와 매체 파트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담화이다. 본격적인 개정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올해 수능에 내보는 상황인 듯하다. 나아가 담화 파트는 코로나로 인한 쉬운 수능 때 내기에 최적이며, 그 동안 화법 영역에 가려져 잘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하므로, 2021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당신은 무조건 해당 부분을 마스터 하셔야만 한다. 근데 담화 파트는 별 내용이 없다. 응집성을 드러내는 다음 표현들을 기억하자.

- 지시 표현 : 대화하고 있는, 함께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곳에 직접적인 지시.
- 대용 표현 : 앞이나 뒷말을 대신하는 표현이다.
- 접속 표현 : 문장 간 혹은 발화 간 연결

사실 유대종이 눈 여겨 본 문제는 접속 표현에 따른 내용상 전체 추론이다.

㉠ 수현이는 작은 호텔의 요리사다. 그래서 수현이의 요리는

정말 맛있다. : 호텔 요리사의 요리는 오졌다리.(맛있음)

- ㉡ 수현이는 작은 호텔의 요리사다. 그러나 수현이의 요리는 정말 맛있다. : 작은 호텔 요리사의 요리는 맛이 없을 것이다.
- ㉢ 수현이는 작은 호텔의 요리사다. 그래서 수현이의 요리는 정말 맛없다. : 작은 호텔 요리사의 요리는 맛이 없을 것이다.
- ㉣ 수현이는 작은 호텔의 요리사다. 그러나 수현이의 요리는 정말 맛없다. : 호텔 요리사의 요리는 오졌다리.(맛있음)

어렵나?
 그럼 이렇게 기억하자.

- A : 유대종은 스튜 1타이다. 그래서 매출이 많다.
- B : 유대종은 스튜 1타이다. 그러나 매출이 많다.
- C : 유대종은 스튜 1타이다. 그래서 매출이 적다.
- D : 유대종은 스튜 1타이다. 그러나 매출이 적다.

- A : 1타는 매출 많을 것이다.(예상대로)
- B : 스튜 강사는 매출이 적을 것이다.(근데 예상과 다름)
- C : 스튜 강사는 매출이 적을 것이다.(예상대로)
- D : 1타는 매출 많을 것이다.(근데 예상과 다름)

자 이제 눈물을 닦고 12번을 분석해 보자.

12번 문제는 전통적인 높임 표현 문제이다. 시험 문제는 2021학년도 수능에 또 나올 수 있는데, 아마 중세 국어 주체 높임 어미, 객체 높임 어미, 상대 높임 어미가 나올 확률이 높고, 상대 높임 어미가 나올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학습하든가, 철저한 개인 학습이 자신 없으면 내 파이널을 듣는 것을 추천한다. 내가 다른 국어 강사를 추천할 수는 없잖아.

자, 이제 함께 2021학년도 6평 13~15번 문제부터 보자.

13.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학년도 6평]

< 학습 활동 >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선행 체언이 무정물일 때는 ‘ㅅ’이 쓰이고, 유정물일 때는 모음 조화에 따라 ‘의’, ‘의’ 등이 쓰인다. 다만 유정물이라도 존칭의 대상일 때는 이들 대신 ‘ㅅ’이 쓰인다. 이를 참고하여 선행 체언과 후행 체언이 관형격 조사로 연결되었을 때의 모습을 아래 표의 ㉠~㉥에 채워 보자.

선행 체언	아버님 (아버님)	그럭 (기러기)	아들 (아들)	수풀 (수풀)	등잔 (등잔)
후행 체언	곁 (곁)	목 (목)	나흐 (나이)	가운데 (가운데)	기름 (기름)
적용 모습	㉠	㉡	㉢	㉣	㉤

- ① ㉠: 아버님(아버님+의) 곁 ② ㉡: 그럭(그럭+의) 목
 ③ ㉢: 아드(아들+의) 나흐 ④ ㉣: 수풀(수풀+ㅅ) 가운데
 ⑤ ㉤: 등잔(등잔+ㅅ) 기름

[풀기 전 작업]
 텍스트를 철저히 분석하자. 텍스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정(사람이나 동물) : 높임(‘ㅅ’) / NOT높임(‘의’, ‘의’)
 무정(사람도 동물도 아님) : ‘ㅅ’

아울러, 해당 문제는 모음조화 및 유정 명사 무정 명사 개념 정도는 안다는 전제 하에 낸 것이다.

아래 수특 문제 좀 보자.

[문제]

<자료>는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를 탐구하기 위한 예이다. (1), (2)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 보 기 >

>

㉠ 사슴밧 (사슴의 가죽)
 ㉡ 거부비 터리 (거북의 털)
 ㉢ 부텃 몸 (부처의 몸)
 ㉣ 나뭇 불휘 (나무의 뿌리)

- (1) ㉠과 ㉡을 보니, 모음 조화에 따라 관형격 조사가 양성 모음 뒤에서는 ‘_____’가 쓰였고 음성모음 뒤에서는 ‘_____’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2) ㉠, ㉡과 ㉢, ㉣을 보니, _____와/과_____ 뒤에서는 관형격 조사 ‘ㅅ’이 쓰였고 그 이외의 체언 뒤에서는 관형격 조

사 ‘_____’와 ‘_____’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정리]

- (1) ‘으’는 양성 모음이고 ‘으’는 음성 모음이므로, ‘으’가 들어간 ‘의’는 양성 모음이고 ‘으’가 들어간 ‘의’는 음성 모음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에 따라 앞의 명사에 양성 모음이 쓰였으면 ‘의’가, 음성 모음이 쓰였으면 ‘의’가 붙었다.
 (2) ‘사슴(사슴)’과 ‘거북(거북)’은 유정 명사이고 ‘나무(나무)’는 무정 명사이다. 유정 명사에 붙는 관형격 조사는 ‘의/의’이고 무정 명사에 붙는 관형격 조사는 ‘ㅅ’이다. ‘부텃’은 높임의 대상이 되는 명사인데, 높임 명사는 유정 명사이지만 무정 명사와 같이 관형격 조사 ‘ㅅ’과 결합한다.

[정답]

- ① : 현대어 풀이를 보는 건 기본이다. 특히 연결이 되어 있으면, 즉 소리나는 대로 고전 단어가 쓰여 있으면 내가 알아서 끊어주세요. ‘아버님’이 높임의 대상이므로 당연히 관형격 조사는 ‘ㅅ’이 들어가야 한다.

[오답]

- ②,③,④,⑤ : 수풀, 등잔은 사람도 동물도 아니므로 무정 명사이므로 ‘ㅅ’으로 처리. ‘기러기’는 동물이므로 유정 명사인데, ‘그럭’의 끝모음이 ‘ㄱ’으므로 ‘의’를 쓰는 것이 타당하다.)

역시 문법 파트는 EBS 수특, 수완을 철저히 반영하겠다는 평가원의 의지를 알 수 있다. 대신 평가원과 충돌되는 EBS의 부분들이 있으므로, 수업들을 기반으로 하여 여러분들의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을 필요도 있을 것이다.

14. <보기>의 ㉠~㉤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2021학년도 6평]

< 보 기 >
주기적으로 운동하기가 ㉠건강의 첫걸음이다. 그것을 꾸준히
하게 ㉡실천하기 ㉢원한다면 제대로 ㉣된 계획 세우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 ①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주어 기능을 하고 있다.
②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다.
③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다.
④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보어 기능을 하고 있다.
⑤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관형어 기능을 하고 있다.

극악의 정답률을 보였던 문장 분류 파트 문제입니다. 같이
보시죠.
일단, 네가 공부를 했다면 명사절이 밑줄 친 부분 자체로는
㉡ 밖에 없다는 걸 간파했어야죠. 그냥 '아! 실천하기를 원
한다? 목적어로 기능하네. 즐라 쉽네.' 하고 넘어갔으면 낡
인 겁니다. [3점]짜리 문제가 무슨 역배점도 아니고...
다시 보니까 보이는 게 있죠? ㉠ 자체가 아니라 ㉠ 이 서술
어인 문장에서. 즉, 문장을 따로 살려 놓고 문제를 풀라는
애기입니다.

- [정답]
① ㉠이 서술어인 문장: 주기적으로 운동하기가 건강의 첫걸음
이다.
즉, 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오답]
② ㉡이 서술어인 문장 : 그것을 꾸준히 실천한다.
즉, 페이크 문제였죠. (매력적 오답. 제발 성급하게 풀지 말
자.)
③ ㉢이 서술어인 문장 :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기 원한다.
명사절이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④ ㉣이 서술어인 문장 : 계획 세우기가 제대로 되었다.
아마, 평가원이 매력적 오답으로 만들었지만 실패한 선지입
니다. '되다. 아니다' 앞에 주어를 보충해주는 성분이 필요하다면 그
것이 보어인데, 해당 명사절은 주어야. 라는 문제의 의도가 돋보
였으나, 학생들이 못 알아 들었음. 아무튼 오답임.
⑤ ㉤이 서술어인 문장 : 제대로 된 계획 세우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명사절이 주어로 기능하고, '제대로 된'이라는 관형절이 관형
어로 기능하고 있네요.

14번 관련 문제는 제발 평가원 문제를 푸시길 바랍니다!
EBS는 안긴절 계열에서 평가원 문제를 따라 갈 수가 없습
니다. 아래 평가원 문제 한번 풀자. 그래도 어려우면 문법
총론에 문장의 분류 파트를 철저히 들어보세요. 명쾌해
질 겁니다.

14.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14번]

㉠ 그녀는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 내가 만난 친구는 마음이 정말 착하다.
㉢ 피곤해하던 동생이 엄마가 모르게 잔다.
㉣ 그가 시장에서 산 배추는 값이 비싸다.

- ① ㉠과 ㉡은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② ㉢과 ㉣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③ ㉠은 명사절 속에 부사어가 있고, ㉡은 서술절 속에 부사어
가 있다.
④ ㉠은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고, ㉢은 목적어가 생략
된 안긴문장이 있다.
⑤ ㉢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은 관형어
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Table with 7 columns: 문항 번호, 정답, ①, ②, ③, ④, ⑤. Row 1: 18번, ②, 15%, 27%, 8%, 43%, 7%

-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에 제시된 문장의 구조를 분석해 보자.
㉠ 그녀는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라는 명사절이 안겨 있다.
→ 여기서 명사절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는 목적격 조사 '를'과 결
합하여 목적어로 쓰였다.
- 그 명사절 속에 '따뜻한'이라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봄이 따뜻하다'이므로, 관형절로 안기면서
주어 '봄이'가 생략되었다.
㉡ 내가 만난 친구는 마음이 정말 착하다.
- '내가 만난'이라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내가 친구를 만나다'이므로, 관형절로 안
기면서 목적어 '친구'가 생략되었다.
- '마음이(주어)+정말(부사어)+착하다(서술어)'라는 서술절이 안겨 있
다.
㉢ 피곤해하던 동생이 엄마가 모르게 잔다.
- '피곤해하던'이라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동생이 피곤해하였다'이므로, 관형절로 안
기면서 주어 '동생'이 생략되었다.
- '엄마가 모르게'라는 부사절이 안겨 있다.
㉣ 그가 시장에서 산 배추는 값이 비싸다.
- '그가 시장에서 산'이라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그가 시장에서 배추를 샀다.'이므로, 관형절
로 안기면서 목적어 '배추'가 생략되었다.
- '값이(주어)+비싸다(서술어)'라는 서술절이 안겨 있다.

②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란 서술절을 말하는 것으로, ㉠과 ㉡에는 서술절이 존재하지만, ㉢과 ㉣에는 서술절이 존재하지 않는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란 관형절을 말하는 것으로, ㉠과 ㉡에는 모두 관형절이 존재한다.
- ③ ㉠은 명사절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에 부사어 '빨리'가 있고, ㉡은 서술절 '마음이 정말 착하다'에 부사어 '정말'이 있다.
- ④ ㉠, ㉡에는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이 존재하고, ㉢, ㉣에는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절이 존재한다.
- ⑤ ㉢의 안긴문장 '엄마도 모르게'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부사절이며, ㉣의 안긴문장 '그가 시장에서 산'은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관형절이다.

15.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21학년도 6평]

< 보 기 >

학생: 선생님, 자기 소개서를 써 봤는데, 띄어쓰기가 맞는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헛갈리는 부분을 표시해 왔어요.

양로원에 가서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그 시간에
 ㉠ 봉사 보다는 게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작은 일을
 ㉡ 도울 뿐이었는데 ㉢ 너 밖에 없다면 행복해하지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을 ㉣ 때 만큼은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선생님: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써야 하지만, 조사는 예외적으로 그 앞말에 붙여 쓴다.

학생: 아, 그럼 [A] 은/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하는군요.

- ① ㉠의 '보다', ㉡의 '밖에'
- ② ㉢의 '뿐', ㉣의 '밖에'
- ③ ㉢의 '뿐', ㉣의 '만큼'
- ④ ㉠의 '보다', ㉡의 '뿐', ㉣의 '만큼'
- ⑤ ㉠의 '보다', ㉡의 '밖에', ㉣의 '만큼'

학생들 입장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한 띄어쓰기 문제인데, 올해 문법 총론 강의 1,2강에서 제가 분명히 어문규정 강화되어서 띄어쓰기 문제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수능 때 또 나올 수 있고, 나오면 본+보조 용언과 함께 나올 겁니다.

[정답]

- 봉사보다(체언+조사)
- 도울 뿐(만큼, 대로, 뿐은 앞에 명사가 있으면 조사, 명사가 없으면 만큼, 대로, 뿐 자체가 의존 명사라고 5번은 얘기한 것 같습니다.)
- 너밖에 (안, 밖 할 때 그 밖이 아니죠? 그렇다면 조사입니다. 조사는 체언 옆에 붙여서 써야겠죠.)
- 때만큼(만큼, 대로, 뿐은 앞에 명사가 있으면 조사, 명사가 없으면 만큼, 대로, 뿐 자체가 의존 명사라고 6번은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해당 '만큼'은 조사겠죠.)

15번 관련 띄어쓰기 문제는 이미 EBS에서 출제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다른 EBS를 다 하진 못해도 문법은 제발 하세요.

[문제]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할 때, 문장 속에서 ㉠~㉣에 해당하는 부분의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국어에서 조사는 항상 앞말에 붙여 쓰며, ㉠조사의 앞말로는 체언이 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사의 앞말로 다른 조사가 오는 경우도 있다. 또한 ㉢조사의 앞말로 안긴절이 오기도 한다. 특히 인용절 다음에 붙는 인용의 부사격 조사도 항상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① ㉠: 너밖에 없어.
- ② ㉠: 핸드폰은커녕 다 안 돼.
- ③ ㉢: 입구까지만도 30분이 걸렸다.
- ④ ㉢: 문 여는 시간은 10시부터입니다.
- ⑤ ㉣: “지금 다들 모여라.” 라고 말씀하셨다.

[정답]

④ : '이다' 는 서술격 조사로 다른 조사인 '부터' 에 붙여서 써야 한다.

[오답]

- ① 조사 '밖에' 앞에 체언 '너' 가 오는 경우이다.
- ② '은커녕' 은 합성 조사로 조사 '은커녕' 앞에 체언 '핸드폰' 이 오는 경우이다.
- ③ 조사 '도' 앞에 다른 조사인 '만' 이, '만' 앞에 '까지' 가 오는 경우이다.
- ⑤ 조사 '라고' 앞에 인용절이 오는 경우이다.

근데, 미시 개념은 6평 때 이미 나왔으니, **이제 나올 것은 본+보조입니다.** '-서'를 넣어 봐서 말이 되면 '본+본', 그렇지 않으면 '본+보조'으로, 본+본은 띄어쓰고, 본+보조는 띄어 씬을 원칙으로 하되, -아, -어, -어로 이어지는 보조용언 계열은 붙여 씬도 허용합니다. 아울러, 단음절 의존명사에 '하다', '싫다'가 붙는 경우 역시 붙여 씬도 허용한다. 단, 앞말이 합성 동사이거나 중간에 조사가 붙으면 원칙을 적용하여 무조건 띄어 쓴다.

자, 이제 딱딱딱한 9평 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억하자. 기본기 + ebs 수특수완 + 스텝팩!

자, 이제 9평 12~13번을 보도록 합시다.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학년도 9평]

11.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2021학년도 9평]

< 보 기 >

선생님: 용언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령, 어간 ‘오-’와 어미 ‘-아’가 결합해 [와]로 발음될 때, 단모음 ‘o’가 반모음 ‘w’로 교체되는 것이지요. 우리말의 반모음은 ‘j’도 있으니까 반모음 ‘j’로 교체되는 예도 있겠죠? 그럼 용언 어간의 단모음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반모음 ‘j’로 교체되는 예를 들어 볼까요?

학생: 네, ㉠로 발음되는 예를 들 수 있어요.

- ① 어간 ‘뛰-’와 어미 ‘-어’가 결합해 [뛰여]
- ② 어간 ‘차-’와 어미 ‘-아도’가 결합해 [차도]
- ③ 어간 ‘잠그-’와 어미 ‘-야’가 결합해 [잠가]
- ④ 어간 ‘견디-’와 어미 ‘-어서’가 결합해 [견더서]
- ⑤ 어간 ‘키우-’와 어미 ‘-어라’가 결합해 [키워라]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반모음 첨가, 탈락, 교체가 머리 속에 딱! 하고 떠올랐어야만 합니다.
반모음에는 j, w 계열이 있고, j 계열인 야, w 계열인 와/워 등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지요.
즉, ①번을 쓰신 분은 머릿속에 첨가, 탈락, 교체라는 총체적 개념이 부실한 것이고 ⑤번을 쓰시는 분들은 반모음 j를 전혀 모르셨던 분들입니다. 반모음에 대한 기본기를 다시 익히시길 바랍니다.

11. ④

[정답 분석]

용언의 어간 ‘견디-’와 ‘-어’로 시작하는 어미 ‘-어서’가 결합하여 [견더서]로 발음되면서 어간의 단모음 ‘i’가 반모음 ‘j’로 교체된 예입니다. ‘키’는 반모음 ‘j’ + 단모음 ‘i’로 구성된 이중 모음인데, 어간의 ‘i’가 어미의 ‘-어’와 만나 ‘키’가 되는 과정에서 단모음 ‘i’가 반모음 ‘j’로 교체되며 [키]로 발음된 것입니다.

[오답 분석]

- ① 어간 ‘뛰-’와 어미 ‘-어’가 결합해 [뛰여]로 발음되는 것은 반모음 ‘j’가 첨가가 된 결과입니다.
- ② 어간 ‘차-’와 어미 ‘-아도’가 결합하여 [차도]로 발음된 것은 단모음 ‘a’가 탈락된 결과입니다.
- ③ 어간 ‘잠그-’와 어미 ‘-야’가 결합하여 [잠가]로 발음된 것은 어간의 단모음 ‘ㄱ’이 탈락된 결과입니다.
- ⑤ 어간 ‘키우-’와 어미 ‘-어라’가 결합해 [키워라]로 발음된 것은 어간의 단모음 ‘u’가 어미 ‘-어’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단모음 ‘u’가 반모음 ‘w’로 교체된 결과입니다.

사전의 뜻풀이 대상이 되는 표제 항목을 ‘표제어’라고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에는 붙임표 ‘-’가 쓰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붙임표는 표제어의 문법적 특성, 띄어쓰기, 어원 및 올바른 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표제어에 붙임표가 쓰이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접사와 어미처럼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언제나 다른 말과 결합해야 하는 표제어에는 다른 말과 결합하는 부분에 붙임표가 쓰인다. 접사 ‘-질’과 연결 어미 ‘-으니’가 이러한 예이다. 다만 조사도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지만 단어이므로 그 앞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용언 어간도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지만 어미 ‘-다’와 결합한 기본형이 표제어가 되고, 용언 어간과 어미 ‘-다’ 사이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둘째, 둘 이상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표제어에는 가장 나중에 결합한 구성 성분들 사이에 붙임표가 한 번만 쓰인다. ‘이등분선’은 ‘이’, ‘등분’, ‘선’의 세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복합어이다. 이 복합어의 표제어 ‘이등분-선’에서 붙임표는 ‘이등분’과 ‘선’이 가장 나중에 결합했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복합어의 붙임표는 구성 성분들을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는 점도 알려 준다.

한편 ‘무덤’, ‘노름’, ‘이따가’처럼 기원적으로 두 구성 성분이 결합한 단어이지만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현대 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나 ㉠ 단어의 의미가 어근이나 어간의 본뜻과 멀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단어를 소리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소리대로 적는 단어들은 구성 성분들이 원래 형태의 음절로 나누어지지 않으므로 표제어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무덤’의 접미사 ‘-엄’은 현대 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한다. 따라서 어근 ‘묻-’과 접미사 ‘-엄’이 결합한 ‘무덤’은 소리대로 적고 표제어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엄’과 비슷한 접미사에는 ‘-암’, ‘-억’, ‘-우’ 등이 있다.

‘노름’은 어근 ‘놀-’의 본뜻만으로는 그 의미가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서로 내기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조금 지난 뒤에’를 뜻하는 ‘이따가’도 어간 ‘있-’의 본뜻과 멀어졌다. 따라서 ‘노름’과 ‘이따가’는 소리대로 적고 표제어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12.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맨발’에서 분석되는 접두사의 뜻풀이를 표제어 ‘맨-’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나만 비를 맞았다.’에서 쓰인 격 조사의 뜻풀이를 표제어 ‘를’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저도 학교 앞에 삽니다.’에서 쓰인 동사의 뜻풀이를 표제어 ‘살다’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앞과 집’이 결합한 단어를 ‘앞 집’처럼 띄어 쓰면 안 된다는 정보를 표제어 ‘앞-집’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논둑’과 ‘길’이 결합한 ‘논둑길’의 구성 성분이 ‘논’, ‘둑’, ‘길’이라는 정보를 표제어 ‘논-둑-길’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㉔의 '장미였다'는 명사 '장미'에 서술격 조사의 활용형인 '였다'가 결합하여 서술어로 쓰인 예입니다.
- ⑤ ㉔의 '세'는 수사가 아닌 수관형사입니다. 수관형사 '세'가 의존 명사인 '마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인 예입니다.

자, 이제 중세 국어를 보도록 하자.

15.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나랏 :말쓰·미 中동國·귀·에 달·아 文문字·쥁·와·로 서르
스몯·디 아·니홀·썩 ·이런 전·츠·로 어·린 百·빅姓·성·이 니
르·고·져 ·홍·배 이·셔·도 ㅁ·츄·내 제 ·쁘·들 시·러 꺾·디 :
몯홍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왕·호·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들 字·쥁·를 ㅁ·그·노·니 :사롬·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뿌·메 便便安안·키 호·고·져 홍 쓰르·
미니·라

- 『훈민정음』 언해, 세조 5년(1459) -

○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 ① ‘:말쓰·미’와 ‘·홍·배’에 쓰인 주격 조사는 그 형태가 동일하군.
- ② ‘하·니·라’의 ‘하다’는 현대 국어의 동사 ‘하다’와 품사가 동일하군.
- ③ ‘·이·를’과 ‘·새·로’에는 동일한 강약을 표시하는 방점이 쓰였군.
- ④ ‘:히·여’와 ‘便便安안·키 호·고·져’에는 모두 피동 표현이 쓰였군.
- ⑤ ‘·뿌·메’에는 ‘사용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쁘다’가 쓰였군.

많이 당황했죠? 기본기 없으면 다 틀립니다 이제는. 문제만 디립다 풀지 마시고 기본기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하세요.

①은 이형태를 묻고 있다. 받침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대한 구분(받침이 있으면 ‘이’, 그렇지 않으면 ‘ㅣ’)

②는 많다는 형용사이고, 현대 국어 ‘하다’는 동사이기에 품사가 다름을 묻고 있다.

③은 방점이 말의 높낮이 (평성, 상성, 거성) 등을 드러냄을 알고 있냐 묻고 있다.

④ ‘:히·여’를 ‘호(어근)- + -이(사동접사)- + -어’로 파생적 사동을 분석할 수 있느냐, ‘편안하게 하다.’의 통사적 사동을 이해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다.

⑤ 는 ‘쁘다(use)’와 ‘쓰다(글씨를 쓰다)’를 구분하는 문제로 출제되었는데 문법 강의에서 누구나 강조하는 부분이다.

15. ㉔

[정답 분석]

‘·뿌·메’는 ‘쁘-(동사의 어간) + -움(명사형 어미) + 에(부사격 조사)’로 분석됩니다. 여기서 ‘쁘다’는 ‘사용하다(用)’의 의미를 지니는 동사입니다. 참고로 중세 국어의 ‘쁘다’가 아닌 ‘쓰다’는 ‘글씨를 쓰다(書), 모자를 쓰다’ 등의 의

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말쓰·미’는 ‘말쓰 + 이(주격조사)’로, ‘·홍·배’에서 ‘배’는 ‘바 + ㅣ(주격조사)’로 분석됩니다. 주격 조사 ‘이’와 ‘ㅣ’가 각각 쓰인 것으로 그 형태가 다릅니다. 주격 조사 ‘이’는 자음(받침)으로 끝난 체언 뒤에, 주격 조사 ‘ㅣ’는 ‘ㅣ’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 사용되었습니다.
- ② ‘하·니·라’의 ‘하다’는 동사가 아닌 현대 국어의 형용사인 ‘많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 ③ ‘·이·를’과 ‘·새·로’에 왼쪽에 찍힌 점을 방점이라고 하는데 이는 강약이 아닌 말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 ④ ‘:히·여’와 ‘便便安안·키 호·고·져’에는 모두 피동 표현이 아닌 사동 표현이 쓰인 예입니다. ‘:히·여’는 ‘호(어근)- + -이(사동접사)- + -어’로 분석할 수 있고, ‘便便安안·키 호·고·져’는 ‘便便安안 + -호- + -고 + -호- + -고’로 분석되는데 ‘-고 호-’는 현대 국어의 사동 표현인 ‘-게 하다’에 대응하는 표현입니다.

이 15번은 수특 중 이 문제를 따 왔습니다.

[문제]

옛말 사전의 ㉔, 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㉔~㉕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㉔ : 좋다 [好] 단 좋다. ㅍ 날도 도쿄 서르 좋용호여(날도 좋고 서로 조용하여), 도쿄나 곳거나 아롭다거나 아롭답디 아니거나(좋거나 곳거나 아롭답거나 아롭답지 않거나)

㉕ : 좋다 [好] 닻 좋아지다. 병이 낫다. ㅍ 그 아드릭 病(병)이 즉재 도쿄닐(그 아들의 병이 즉시 좋아지거늘), 현 우회 블로디 도쿄록 호라((상처로 인해) 현 위에 바르되 좋아질 때까지 하라)

a: ㉔은 상태의 변화를, ㉕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b: ㉔과 ㉕은 형태와 성조가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품사로 분류되고 있다.

c: ㉔과 ㉕의 활용형에서는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a, b
- ⑤ b, c

[정답] : ㉔

a : ㉔은 좋은 상태를 나타내고, ㉕은 더 좋아지는 쪽으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b : ㉔과 ㉕은 단어의 형태가 동일하며 방점 ‘:’ 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성조도 동일하지만, ㉔은 형용사, ㉕은 동사로 분류된다.

c : ㉔의 활용형인 ‘도쿄’ (동- + -고), ‘도커나’ (동- + -거나), ㉕의 활용형인 ‘도커닐’ (동- + -거닐), ‘도도록’ (동- + -도록)에는 모두 격음화(거센소리되기)가 반영되어 있다.

문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다시 정리 : 기본기를 확실히 익히도록 합시다. 그래야 총체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수특수완 ebs 충분히 푸시고, 스텝팩 문풀도 함께 해 보세요.